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5호 [주체 제24933호] 주체104(2015)년 6월 4일 (목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아바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

나는 당신의 생일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지적인사를 보내면서 당신이 앞으로도 건강하여 구바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은

주체104(2015)년 6월 3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이탈리아국회 상원 외교위원회
서기장일행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위원회 서기장과 일행이 선물을 드린 방문한 이탈리아국회 상원 외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 이탈리아국회 상원 외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매키오에서 5월 20일과 21일에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정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담은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인들,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기념품과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김정일동지의 혁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은 진보적 인류의 투쟁을 승리로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당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주시고 자주의업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이이셨으며 조선로동당을 사상적전 일제로 다시시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김정일주의 연구보급사업을 보다 강화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1돐 경축모임이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에서 5월 21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원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 열》 인민통일공화국중앙당 중앙리사회 위원장 아. 우우쓰바에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단 한번의 로선상 착오나 실수도 없이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강령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시였으며 당건설과 활동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대로 진행되도록 이끄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참된 애국자가 되자

물확보를 위한 방대한 공사를 끝낸 기세높이

남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남포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물확보투쟁을 힘있게 벌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관계공사를 통해 크게 벌려 3개 양수장의 기존양수동력설비들을 완전히 수리정비하였으며 3대의 대형양수기를 새로 들여왔고 대용량병압기를 설치하여 대용량물을 수송m의 높이까지 퍼올릴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서해물길까지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려 수천m의 물길구간에 오배당된 퇴적되어 있던 1.2만m²의 강방을 평균 2m이상의 깊이로 파냄으로써 시간당 물용량을 종전에 비할바 없이 늘일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서해 1, 2단 양수장의 10여대의 양수기들을 수리정비하고 개조하여 그 어떤 조건에서도 대용량물을 보다 안전하게 퍼올릴수 있게 하였다.

남포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하여 시의 수만정보에 달하는 논밭에 물을 안전하게 펌수 있게 될으로써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절절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부문을서 불철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농사경험과 교훈을 심하게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그 어떤 불리한 날씨조건도 이겨내고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웠다.

관개부문의 일군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차례 협의회의를 진행한 시의 책임일군들은 대용량물을 끌어올려 내륙지대의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관개공사와 워터 로크 및 자배보장, 운수수단보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왔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농총기위원회 일군들이 한사발같이 펼쳐나 공사기술준비로 부터 로크 및 자배보장, 운수수단보장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책을 작성해서 풀어나갔다.

로기남, 김용길, 김성철동무를 비롯한 관계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현장에서 물리대원들이 일군진전건설공사와 새 물길건설, 양수장보수공사와 철관로설치공사를 다그쳐 끝내도록 이끌었다.

이들은 전문가, 기술자들의 협조를 강화하여 공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한편 공사의 질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요구성을 높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관리소일군들과 농업일군들, 구역의 기관,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힘있게 참여하였다. 시당위원회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창호인 농업건설을 앞장서서 추진하여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남포시수배전부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전력계통을 정비하면서 양수동력설비들을 만가공조작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그리고 승전선공사와 동력선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구역의 녀맹원들이 알곡생산에 이바지한다는 높은 책임의식을 안고 수백m의 편지갑을 정성껏 마련하여 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형양수기와 전동기들의 수리정비를 맡은 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났다.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을 비롯한 시의 중요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창호인 농업건설에 자기들도 함께 서있다는 승고한 자각을 안고 설비수리와 보수전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여러대의 대형양수기와 전

동기들을 손색없이 수리보수하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여러 설비들과 부품들, 장치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남포시수배전부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전력계통을 정비하면서 양수동력설비들을 만가공조작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그리고 승전선공사와 동력선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구역의 녀맹원들이 알곡생산에 이바지한다는 높은 책임의식을 안고 수백m의 편지갑을 정성껏 마련하여 공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형양수기와 전동기들의 수리정비를 맡은 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났다.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 대안전기공장을 비롯한 시의 중요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창호인 농업건설에 자기들도 함께 서있다는 승고한 자각을 안고 설비수리와 보수전투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고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여러대의 대형양수기와 전

동기들을 손색없이 수리보수하였으며 공사에 필요한 여러 설비들과 부품들, 장치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다그칠수 있게 하였다.

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수리정비를 다그치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관계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것과 함께 서해물길까지전투도 힘있게 벌어졌다.

남포시의 일군들은 물길까지전투에 동원되는 존철선 《교-준-3 2 1 8 5》호의 선원들속에 들어가 올해 물확보전투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배를 집중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위하여 투기적열성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준철선의 선원들은 근 100일간 배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수심이 깊은 물길바닥에서 1.2만m²의 해묵은 강방을 파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서해물길의 물문으로부터 양수장까지의 수천m간에서 평균 2m이상 낮아짐으로써 대용량물을 운전공의 간석지 밑에 보다 안전하게 펌수 있게 되었다.

은원관관리소의 일군들과 농업일군들은 물문과 양수장, 잠관을 비롯한 물길정리를 잘하여 더 많은 물이 간석지 밑에 흘러들게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지금 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광범한 모내기전투에 한사발같이 펼쳐나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주찬선

협동벌을 꾸게 하는 화선선동의 힘찬 복소리

중앙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 예술선전대원들

농산과 축산, 수산물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중앙예술단체들의 예술인들과 여러 단위의 예술선전대원들이 물결치는 사회주의협동벌에 달려나가 화선선동의 복소리를 크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경제적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협동농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문화사업의 해당 부서 일군들과 각 예술선전대원들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곡목들을 경계선전대원들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갖춘 각 단위 예술인들과 예술선전대원들은 광범한 공연투로 물결치는 사회주의협동벌로 달려나가 수제히 경제선동의 포문을 열었다.

민수대에출단의 예술인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창호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주력방향인 농업건설에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이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평안남도과 량강도의 여러 군들에서 기동성있는 화선선동 공연대회를 펼치었다.

공훈배우 배정연동무를 비롯한 민수대에출단의 예술인들은 평안남도의 여러 군들에서 근 5만명을 대상으로 10여회의

공연활동을 벌였으며 량강도의 여러 군들에서 8만여명을 대상으로 근 20회의 공연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 민수대에출단의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공연활동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각지의 영예군인들과 전령로병들의 가정을 찾아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도 안겨주었다.

내성3중창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랑 애국자야》, 내성독창 《고백》, 《땅과 농민》, 《속이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내 마음》, 남성독창 《자나깨나 원수님생각》, 혼성2중창 《가리라 배두산로》, 혼성2중창 《배두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구성된 민수대에출단의 경제선동공연은 각지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공연을 본 각지의 농업근로자들과 일군들은 정열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훌륭한 공연투로 물결치는 사회주의협동벌로 달려나가 수제히 경제선동의 포문을 열었다.

민수대에출단의 예술인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창호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주력방향인 농업건설에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이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평안남도과 량강도의 여러 군들에서 기동성있는 화선선동 공연대회를 펼치었다.

공훈배우 배정연동무를 비롯한 민수대에출단의 예술인들은 평안남도의 여러 군들에서 근 5만명을 대상으로 10여회의

북도 어랑군의 여러 협동농장에서 다채로운 공연대회를 펼쳐 농업근로자들과 일군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공연성파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국립민족예술단과 국립교예단의 예술인들도 함경남도 금야군의 영예군인들과 전령로병들의 가정을 찾아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도 안겨주었다.

내성3중창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랑 애국자야》, 내성독창 《고백》, 《땅과 농민》, 《속이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내 마음》, 남성독창 《자나깨나 원수님생각》, 혼성2중창 《가리라 배두산로》, 혼성2중창 《배두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구성된 민수대에출단의 경제선동공연은 각지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공연을 본 각지의 농업근로자들과 일군들은 정열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훌륭한 공연투로 물결치는 사회주의협동벌로 달려나가 수제히 경제선동의 포문을 열었다.

민수대에출단의 예술인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창호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주력방향인 농업건설에서 힘찬 로력투쟁을 벌이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하기 위하여 평안남도과 량강도의 여러 군들에서 기동성있는 화선선동 공연대회를 펼치었다.

공훈배우 배정연동무를 비롯한 민수대에출단의 예술인들은 평안남도의 여러 군들에서 근 5만명을 대상으로 10여회의

북도 어랑군의 여러 협동농장에서 다채로운 공연대회를 펼쳐 농업근로자들과 일군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공연성파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물길공사 마감단계, 물잡이 시작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물잡이 시작

중하도목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안의 일군들은 시간당 1,200여m³의 물이 솟아오르는 5개와 6개막장을 수시로 찾아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건설자들의 정진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앞세워나갔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달 전소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1, 2호발전소 발전기설비조립과 압력철관로조립공사를 동시에 내밀면서 마감단계에 이른 물길공사들을 앞당겨 끝내도록 건설자들과 설비보장사업에 힘을 집중하였다.

발전소완공기일을 앞당기는데

를 세우고 매일 1.5m이상의 강학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래드리부공사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도에서는 물길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환강,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공사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자체를 맡은 련관단위에서도 발전소건설자들과 환관호에 선 심정으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수많은 건설자재들을 물길건설장정에 보내주고있다.

물길공사 마감단계에 이른 단계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많은 공사파제를 빠른 기간에 수행할비상한 각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물길공사를 성과적으로 관통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이 단위들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국해방 일흔둘까지 남은 구간의 물길공사를 끝낼 목표

를 세우고 매일 1.5m이상의 강학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래드리부공사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도에서는 물길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환강, 목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공사중단없이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자체를 맡은 련관단위에서도 발전소건설자들과 환관호에 선 심정으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수많은 건설자재들을 물길건설장정에 보내주고있다.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로력적성품을 안고 땀이 들어설 한 마음으로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풍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자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천만군민을 부른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맞으며

6월 4일, 이날은 사람들속에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느덧 78년 세월이 흘렀다. 어제 날 이 역사적인 전투에 참가했던 투사들도, 그날의 타오르는 횃불앞에서 백두산청년장군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지르던 목격자들도 지금은 거의 남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붉은 태양이 날리는 소년단원으로부터 머리에 백발을 얹은 전쟁로병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보천보전투의 거대한 의의가 교과서의 글줄이나 지나간 역사사가 아니라 민족자존의 불멸의 기념비로 깊이 새겨져 있다.

보천보전투는 조선을 건드리는 자는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민족의 기개와 우리 인민은 절대로 그 누구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민족적 자존심을 내외에 선포한 역사적인 전투였다. 누구나 보천보전투를 말할 때면 조선을 죽지 않았다, 조국의 정신은 살았다, 조국의 심장도 살았다, 불을 지르라, 원수의 머리에 불을 지르라 하는 보천보의 불길에 어린 역사의 위함을 생각한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맞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은 천만군민에게 보천보의 불길에서 나래치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여러차례 백두산에 오셔서 맞으신 백두의 칼바람이 보천보의 불길에 오늘날의 시대적의미를 더해준 거대한 생활력을 떨치게 하고 있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필에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안아온 고귀한 결실인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다. 백백 쓰러지면 백백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칼바람은 항일전의 나날 혁명의 길에서 언제든 잊을 수 없는 불어린 신념의 강풍이다. 그것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온갖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비판을 모르는 불굴의 강자들로 키워주며 그들을 조국전군, 조국해방의 길로 힘있게 주동하였다.

얼마전 백두산기슭을 찾았던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천보전투후 조선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신 뜻깊은 곳을 돌아보았다.

78년전 환호하는 인민들앞에서 연설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동상처럼 정중히 보서져 있는 이곳에는 지금도 조선혁명만세의 함성도 높고, 그날의 크나큰 격정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듯싶었다.

백두의 밀림인양 분비, 가문비 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선 정교한 숲을 배경으로 으스스하게 틀어쥔 주먹을 높이 추켜 드시고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러보거나 하나의 불길은 온 조국강산에 혁명승리의 횃불을 지퍼 올린 신철세워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 뜨겁게 안겨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한마디로 말하여 생리보를 당한 어머니와 그 자식들의 상봉과 같은 사면이었고 당국자의 호를 해방으로 돌려 세운 결정적인 계기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보천보를 둘러싼 곤장덕이며 려수덕의 푸른 숲을 그려보노라면 조국의 품으로 달려오는 유격대원들의 그름에 젖은 모습이 어디에서 보일지 130여개의 총탄 자리가 려력한 경찰관주재소며 소방회관, 면사무소들은 혁명선열들의 애국의 무기로 화염에 휩싸이던 일수 없는 그날 밤이 눈앞에 펼쳐지게 하는 듯싶다. 그러노라면 《보천보

야 조국이 아닙니까!》라고 자신있게 웨치던 투사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정경처럼 들려오는 것만 같다.

보천보전투를 앞두고 있는 지휘관 회의에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성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었다.

...보천보를 치자면 여러가지로 타산을 해보아야 한다. 첫째로, 수백명에 달하는 부대가 적의 조밀한 국경 감시망을 뚫고 들어가 적을 치고 뚫고 나가야 하는 전격전을 할 수 있는가? 둘째로, 이 전투는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라 국내인민들에게

패자로 삼고있는 것만큼 화력전을 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한 정치선동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런 신속한 선전선동이 가능한가? 셋째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혁명군력과 지하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놓고 연합작전을 하는 보충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 이 세가지는 다 험치 않은 전제들이었다.

그러나 투사들은 그 어떤 성공여부나 담보에 앞서 해낼 수 있느냐, 명명대 내리십시오라고 사령관동지께 말씀드리었다.

무송원정을 통해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어엿한 혁명가로 성장한 신념

의 인간들에게 다른 대답은 있을 수 없었다.

바로 강도 일제를 위력파라하시던 백두산위인께서 직접 조직지휘하시는 전투이며 그처럼 가고 싶던 조국에로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지휘관들의 절절한 심정이 《보천보야 조국이 아닙니까!》라는 이 한마디 말에 다 담겨 있었다.

조국전군, 보천보전투에로 잇닿은 무송원정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무엇이고 백백 쓰러지면 백백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려사에게 가르쳐 주었다.

무송원정의 그 험난한 길에서 투사들에게 백철불굴의 혁명적의지를

라도 원수를 치자!

기어이 살아서 조국으로 진군하자!

우리의 수령님의 심정에 쏠려버리는 이 불굴의 신념은 유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서 그대로 백백 찢고 항일무장대오는 한치한치 조국으로의 길을 열어 나갔다.

조국전군, 보천보전투에로 잇닿은 무송원정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무엇이고 백백 쓰러지면 백백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려사에게 가르쳐 주었다.

고난의 행군이 라는 값비싼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 면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무송원정의 피어린 결실의 결과로 마련된 것이었다.

간고성과 엄혹성에 있어서 고난의 행군과 더불어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송원정은 로대원들에게 있어서조차 이를 악물고 이겨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엄청난 시련이었다. 추위에 시달리고 굶주림에 쪼들리고 수면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슨 고생인들 없었겠는가. 싸움을 멈추 하다가 피도 많이 흘렸고 가슴이 화끈도 있었다.

간고한 행군과정에 잃었던 미투리가 헤로가 되어 다시 나올 때 이 얼마나 무정수리에 걸려있었는가를 찾았다는 기막힌 이야기도 이때 생겨나고...

역천만번 죽어도 원수를 치자!

기어이 살아서 조국으로 진군하자!

우리의 수령님의 심정에 쏠려버리는 이 불굴의 신념은 유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서 그대로 백백 찢고 항일무장대오는 한치한치 조국으로의 길을 열어 나갔다.

조국전군, 보천보전투에로 잇닿은 무송원정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무엇이고 백백 쓰러지면 백백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려사에게 가르쳐 주었다.

무송원정의 그 험난한 길에서 투사들에게 백철불굴의 혁명적의지를

라도 원수를 치자!

기어이 살아서 조국으로 진군하자!

우리의 수령님의 심정에 쏠려버리는 이 불굴의 신념은 유격대원들의 가슴마다에서 그대로 백백 찢고 항일무장대오는 한치한치 조국으로의 길을 열어 나갔다.

조국전군, 보천보전투에로 잇닿은 무송원정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아 뚫고 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 무엇이고 백백 쓰러지면 백백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연한 투쟁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려사에게 가르쳐 주었다.

무송원정의 그 험난한 길에서 투사들에게 백철불굴의 혁명적의지를

복돌아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견결히 이겨낸 신념의 강자, 불굴의 인간들에게 조국전군의 크나큰 꿈을 이루게 해주었고 보천보전투승리의 진미를 맛보게 해주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년시련을 이겨낸 조선인민혁명군은 보천보전투를 통하여 절세의 위인을 모신 조국은 언제나 죽지 않으며 침략자들이란 칼로 내려치면 동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집짐승이나 북대기처럼 타버리는 일종의 메기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보천보전투의 승리가 그후 구시산전투와 간삼봉전투에서의 패승의 메아리를 안아왔고 적들이 《후두부평하고 강타를 당한것 같다.》느니, 《천남동안 베어들이던 새조를 혼순간에 태워버린듯 한 한을 남겼다.》느니 하면서 아우성을 쳤으며 국내외의 수많은 신문, 통신들도 이 소식을 전하는데 지면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후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첫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보천보를 찾으신 것을 때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더 깊이 연구하고 따라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간곡히 교시하신것이라.

백두산의 기질을 천골으로 타고나 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어린 보천보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우리 민족과 인류의 운명을 수호하시는 절절한 명도자이시며 일당백의 무적강군을 수하에 거느리신 위대한 최고사령관 이시다.

우리에게는 백두산형의 천출위인 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강한 인민이 있으며 보천보전투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같은 위대한 혁명전승이 있다.

우리 인민은 원수님들의 거룩한 자욱어려움을 보천보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타오르는 혁명정신의 횃불, 최후승리의 횃불을 영원히 높이 추켜들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이룩한 위대한 빛나는 백두의 진리를 새겨주며 천만군민을 부른다.

글 쓴사기자 김준현
사진 쓴사기자 김진명



가림천은 길이가 150리가량 되는 크지 않은 시내이다. 나려왔을 우리 인민의 설움과 원한이 물결우에 실려 흐르듯 흐를 때로는 이토록 알려지지 않았던 산골의 평범한 물줄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백두산 위인들의 걸출한 위인상을 소중히 간직 한 때로부터 보천보의 가림천은 세상에 빛을 뿌리고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려사에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십니다.》

주제 45(1956년) 6월 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을 이끄시고 보천보를 찾으신다.

그이께서는 먼길에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아버지수령님의 동상부터 먼저 찾아뵙기 위하여 평소 대오를 이끄시고 가림천기슭으로 향하시었다.

휴식을 생각하던 답사자들은

영문을 몰라 의아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보천보혁명전적지에 구경이나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승을 학습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고 이르시었다. 답사자들의 얼굴에

는 신중할 빛이 어렸다. 아직 혁명전승이라는 네글자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깊이 리해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자기들이 무뎠던 마음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 답사자들을 이끄시고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렬을 정렬시키신 다음 항일전의 빨치산 김대장을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리시었다.

한 학생이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창을 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암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영문은 몰라 의아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보천보혁명전적지에 구경이나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승을 학습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고 이르시었다. 답사자들의 얼굴에

는 신중할 빛이 어렸다. 아직 혁명전승이라는 네글자에 담겨진 심오한 뜻을 깊이 리해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자기들이 무뎠던 마음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가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 답사자들을 이끄시고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앞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렬을 정렬시키신 다음 항일전의 빨치산 김대장을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리시었다.

한 학생이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창을 하였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암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추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러은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우렁찬 노래소리는 가림천기슭을 진감하며 저 멀리 곤장덕

너머로 울려갔다. 일련단신 아버지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자라날 불타는 맹세를 심장깊이 다지던 답사자들은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불멸의 혁명송가를 소리높이 불렀다. 조국해방의 려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절없는 격찬이 10대의 첫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생원들의 목소리에 실려 백두산우에 메아리쳤다.

우리 당의 혁명전승을 애써 물려주는 어중이며중이들의 책도 우심해지고있을 때 려사의 명보 천보에서 불멸의 혁명송가가 울려 퍼졌는 참으로 비대한 의미를 가지었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 백두에서

계획된 주제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단행하실 수 있는 려사의 장적였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답사생들과 함께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돌아보시었다. 조국전군의 나날 한그루 황천나무마래지휘에서 금시라도 전투명령을 내리실듯 한손에 생산장을 틀어쥐고 원수들의 아성을 지켜보시며 서거시는 항일의 명장 김일성장군님!

려사의 그날 조선의 반항들을 조국해방의 횃불로 환히 밝히시며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의 정신도 살아있다고 장엄하게 선포하시던 전철적정용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새겨놓은 답사생들의 가슴마다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선율이 더욱 울려퍼지고있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만년산언덕 안고 흘러흐르는 가림천의 정다운 물소리, 그것은 정명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가 울려 퍼지는 참으로 비대한 의미를 가지었다.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이어 백두에서

전 광 남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워서라도

간고했던 무송원정의 나날을 더듬어

《기 아 원 정》

조국전군으로 잇닿은 무송원정은 배고픔을 이겨내는 투쟁과 정이기도 하였다.

웅근 하무동안 장병이 한알 입에 넣어보지 못하고 맴돌며 으르르 창자를 달래면서 수습리를 행군하는 날이 그 얼마나 지났을까.

이날 조선인민혁명군의 원정부대는 수림속에서 집 한채를 발견하였다.

산에 들어서 아년농사를 하는 사람의 집이었다.

대원들은 집주인에게 며칠째 난입구경을 못하였는데 식량이 있으면 다른 얼마만이라도 팔아달라고 사정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은 거절하였다.

하느수 없이 대원들은 내버린 강병이거로 끼니를 에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가 피겨와 딸라 강병이거는 닭이먹어도 식도에 자꾸 불타고 있고 잘 넘어가지 않았다. 매물에 갈아먹어도 넘기기가 어

려웠고 물에 풀어서 억지로 넘긴다 해도 시장기를 더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우연히 대원이 집주인에게 강우어준 적지 않은 쌀을 발견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그 식량에 대하여 알고있다는 기미를 조곰도 보이지 않고 강병이거로 식사를 대신해가며 집주인을 꾸준히 교양하였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 원정부대가 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어느 한 곳에서 숙영을 하는데 갑자기 적들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식량공작대원들을 은밀하게 뒤따르던 적들이 숙영지를 포위하고 달려들었던 것이다.

그 위기일발의 순간에 항일혁명투사 최금산동지는 한몸이 그 대로 방패가 되어 사령부쪽으로 다그치는 적을 막아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맨 후위에서 천수하시던 것을 보자 벼락같이 달려나와 그를 그이를 막으면서 적들에게 맹렬한 사격을 하였다.

여러발의 총탄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최금산동지는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염오사격을 그치지 않았다.

동지들은 도끼로도 총창으로도 도지게 얼어붙은 땅을 도져

대홍단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 태어나고 그 이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자랑높은 이름답고 살기 좋은

현명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현명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탈리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이탈리아공화국 대통령 쎄르지오 마따렐라각하

나는 이탈리아공화국 국경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4(2015)년 6월 2일 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에게

만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6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댄 락은 주

조 만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조 3일 만수대의시장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리경성 외무성 부장과 만마련대사관 참가가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대화를 하였다.

박봉주 총리

여러 부문 사업 현지료해

박봉주총리가 함경남도의 화학, 기계공업, 수산부문 등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공업위원회 공동주최로 제시된 전투적 과업판별을 들쭉고있는 도내 전투장황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총리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돌아보면서 시비면도비료와 대살비생산정형, 원양어로준비정형, 바다양어 및 양식발전전망, 기술개건실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 보았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건설장에 보내준 대살비료생산선을 끝내고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수직대생산기지를 꾸려놓았으며 신로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서 바다양어와 양식을 과학화, 집약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춘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과 당의 구상을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라고 하면서 총리는 10월의 대축전정을 향한 총진군에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지에서 관계부문 일군협의 회들이 진행되었다.

현의회들에서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함경남도도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

여러 부문 사업 현지료해

박봉주총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박봉주총리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현지료해

대홍단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에 태어나고 그 이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자랑높은 이름답고 살기 좋은

현명사적관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공동구호에서 우리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자!

사연깊은 력사유적에 새겨가는 값높은 삶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가운데는 외진 산골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애국가, 숨은 공로자들이 많습디다.》

우리의 것,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전통을 후세에 길이 전해가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속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력사유적인 동명왕릉을 지키는 동명왕릉유적관리소 종업원들도 있다.

오개근동무가 동명왕릉유적관리소 소장인 오개근동무와 종업원들 1992년 12월 초였다. 임명받은 그날도 왕릉으로 달려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으로 격동적이었다. 세월의 풍파에 시달려온 동명왕릉은 민족의 자랑, 력사의 결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일신하고있었다.

오개근동무는 낮에는 건설자들과 함께 땅을 훑고리고 밤이면 유구한 우리 나라 력사와 민족유산보호부문에 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에 새겨가느라 시간가는줄 몰랐다. 그리고 짝이 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왕릉이 자기의 유적, 유물들이 있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들을 파고들었고 민족유산보존관리사업에 대한 리해를 깊어갔다.

동명왕릉유적관리소 소장 오개근동무와 종업원들

아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훌륭히 개진된 동명왕릉은 이듬해 5월 준공되었다.

오개근동무와 관리소종업원들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기념사연을 적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오개근동무는 종업원들과 힘과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력사유적보존관리로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어특세벽 집을 나서서 아버지수령님의 친필글발이 새겨진 동명왕릉기념비로부터 시작하여 왕릉이름 돌조각상들과 천연기념물 소나무군락, 정물사와 참판도 등을 일일이 돌아보며 자그마한 손상도 없도록 대책을 세웠고 푸른 잔디와 진주못의 맑은 물이 흐르질세라 극진히도 마음을 썼다. 강사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반만년의 민족사를 더듬어가며 울분과 격정을 터뜨리기도 하고 감격과 긍지에서 겨워 눈물짓기도 했다.

그런데 민족의 대국상을 당할 줄 어이 알았으랴. 괴논물의 7월의 그 날날 오개근동무는 아버지수령님의 친필글발이 새겨진 동명왕릉기념비를 부둥켜안고 오열을 터뜨리며 몸부림쳤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장나무들과 소나무들을 쓸어내리며 오개근동무는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동명왕릉을 원상그대로 보존관리하여

참판자들이 유구한 우리 민족사와 우리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도록 할 것을 굳게 맹세다지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는 수령님의 령도자욱이 새겨져있는 동명왕릉과 정물사 등 력사유적유물들을 사소한 손상이나 변색이 없이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과학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웠다.

고난의 시기에에도 오개근동무의 하루일과는 변함없이 갔다. 예전과 같이 매일 이른새벽이면 어김없이 동명왕릉개건기념비를 찾아 불멸의 친필글발을 숭엄히 우러러 총성의 맹세를 다지고 종일 유적지구를 원상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저녁이면 당세포시와 함께 종업원들의 집집을 돌며 아버지전 심정으로 위해주곤 하였다.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애쓰는 이런 소장을 따라 종업원들은 모든지 어려운 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은성이 깃든 장나무, 소나무들을 해마다 수십의 거름을 주어 푸르싱싱하게 자라게 하고 왕릉지구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폭우속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1000여㎡의 흙을 울리고

1200㎡의 잔디를 씌워 유서깊은 왕릉을 원상대로 보존하였으며 900여㎡의 돌과 흙을 날라다 쌓고 다지여 도로를 훌륭히 복구해놓았다.

하지만 오개근동무는 만족을 몰랐다. 그는 혁명적근로정신,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으로 잔디 깎는기계들을 마련하여 종업원들이 목지관리를 할하면서도 능률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왕릉 가까이 양수기와 강우설비를 설치하여 아무리 가물이 계속되어도 원림구역의 아름다움을 보존할수 있게 하였다. 집집을 돌고 돌아 유적지구를 원상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저녁이면 당세포시와 함께 종업원들의 집집을 돌며 아버지전 심정으로 위해주곤 하였다.

우리의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애쓰는 이런 소장을 따라 종업원들은 모든지 어려운 속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은성이 깃든 장나무, 소나무들을 해마다 수십의 거름을 주어 푸르싱싱하게 자라게 하고 왕릉지구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었다.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폭우속에서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1000여㎡의 흙을 울리고

대한 선전사업에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구구하면서도 설득력있게 진행해나갔다.

오개근동무와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여있는 동명왕릉이 이른날 력사문화유적, 세계문화유산으로서뿐 아니라 위대건국양상소, 대중문화교양장소로 훌륭히 꾸러지고 잘 보존관리되어 참관자들속에서는 《동명왕릉은 조선노동당의 민족유산에 승정해의 정당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력사의 증거물》이라는 찬란한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되었다.

동명왕릉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에 새기고 소결한 량심과 성실성,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온 오개근동무와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동명왕릉관리를 잘하고있다는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고이 감사의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어느덧 스무해는 세월이 흘러 오개근동무는 일흔이 지난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오개근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어니 하루도 자기가 세운 일과, 자기가 정한 로정을 어기지도 흐트러지지도 않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길에서 삶의 자욱자욱을 총정파 헌신으로 값있게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지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주제일주의가 있으며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변역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표를 단 우리의 제품이 늘어나고있다.

얼마전 성황리에 진행된 제18차 평양 불철국제상품전람회장에서 류타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전시대가 열리고있다.

동양고려야공장전시대였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천연고려야공들을 써보았는데 치료효과가 빠르고 뚜렷하다. 특히 천연성분고려야공과 천연화교야공은 다른 약들을 써서도 고치지 못한 질병들을 완쾌시켰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다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들이 인기제품으로 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지난 시기 이 공장 일군들과 연구진단은 우리 나라의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의 적극 발전

시킴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우리 나라에 호한 천연재료를 가지고 효능있는 천연고려야공 개발할 목표를 오랜 기간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이 제품개발에서 힘을 넣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치료효과가 뚜렷하면서도 빠른 고려야공 개발완성이었다.

수백차에 걸치는 실험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들은 주저와 동요를 몰랐다. 그 나날 그들이 걸은 길은 열마이고 지새운 발은 그 열마이라.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심중에 더욱 굳게 자리잡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내 나라의 산과 들에서 나는 우리의 자연으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고려의학발전이 이바지하는 효능있는 고려야공을 기어이 만들어내

고야말 비상한 각오와 의지였다.

불타는 애국의 열정과 높은 민족적자존심, 과학기술적잠재력은 드디어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

다년간의 노력끝에 이 공장에서 만든 천연성분고려야공, 천연소화교야공, 천연간장야공, 천연간장교야공을 비롯한 천연고려야공들의 효능이 임상실험적으로 검증되었던것이다.

지금 이 공장에서 는 의약품뿐만아니라 천연미안제, 천연팔복차 등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기능성제품들도 생산하고 있다.

내 조국의 산과 들에서 나는 천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우리의 상표를 단 인기제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것, 조선의것이 아니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남호



얼마전 해주시제2인민병원 특발성피저치료과 의사 김철웅동무와 그의 가정

에서 치명적인 난병인 이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특발성피저 치료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를 생각을 품게 되었다.

바른 속에서 그는 잘생긴 의학공부를 하며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모색했다. 가정을 이루고 새 세대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는 연구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급병으로 일손을 놓은 그는 특발성피저에만 집착했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연구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제손으로 고려야공들을 채취하여 세포배양 인체에서 나타나 는 변화에 대하여 관찰했다. 의 학도사들에게 있는 처방에 주의를 돌리면서 고려야공들의 배합 비율을 달리해보는 등 연구를 심화시키나갔다.

그 과정에 고려치료방법의 우월성과 그 효력에 대하여 깊이 인식한 그는 특발성피저에 대한 치료로 고려치로방법으로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가정례녀성을 우리 나라에

본포되어있는 고려야공들을 빠짐없이 찾기로 많은 길을 걸었다. 가지가 없는 산이 별로 없었다. 채취해보지 못한 약초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이 고난과 시련을 헤치던 날날에도 강령례녀성을 약초 배양을 메고 산으로 올랐다.

약리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면 서 고려야공들의 올바른 선정과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확정하고 난지성질병 치료에 전력을 가쳐올수 있는 과학기술적대책을 더욱 다져나 갔다.

그가 개발한 고려야공은 여러 치료단위에서 임상실험도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기적적이었다. 이 고려야공으로 특발성피저와 골수염은 물론 유선종, 각종 암성 질환들과 질병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던것이다. ... 김철웅동무는 수십년의 흔적 이력적인 어머니의 부피두려운 실험일들과 512번제로 받은 편지를 쓸어보며 가슴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었다.

우리의것을 빛내이는 길에 바쳐진 삶이 이런 참되고 아름다운 자욱을 맺었이 남길수 있는 것들을.

본사기자 조경철

분포되어있는 고려야공들을 빠짐없이 찾기로 많은 길을 걸었다. 가지가 없는 산이 별로 없었다. 채취해보지 못한 약초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이 고난과 시련을 헤치던 날날에도 강령례녀성을 약초 배양을 메고 산으로 올랐다.

약리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면 서 고려야공들의 올바른 선정과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확정하고 난지성질병 치료에 전력을 가쳐올수 있는 과학기술적대책을 더욱 다져나 갔다.

그가 개발한 고려야공은 여러 치료단위에서 임상실험도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기적적이었다. 이 고려야공으로 특발성피저와 골수염은 물론 유선종, 각종 암성 질환들과 질병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던것이다. ... 김철웅동무는 수십년의 흔적 이력적인 어머니의 부피두려운 실험일들과 512번제로 받은 편지를 쓸어보며 가슴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었다.

우리의것을 빛내이는 길에 바쳐진 삶이 이런 참되고 아름다운 자욱을 맺었이 남길수 있는 것들을.

본사기자 조경철

가정례녀성을 우리 나라에 분포되어있는 고려야공들을 빠짐없이 찾기로 많은 길을 걸었다. 가지가 없는 산이 별로 없었다. 채취해보지 못한 약초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이 고난과 시련을 헤치던 날날에도 강령례녀성을 약초 배양을 메고 산으로 올랐다.

약리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면 서 고려야공들의 올바른 선정과 합리적인 배합비율을 확정하고 난지성질병 치료에 전력을 가쳐올수 있는 과학기술적대책을 더욱 다져나 갔다.

그가 개발한 고려야공은 여러 치료단위에서 임상실험도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기적적이었다. 이 고려야공으로 특발성피저와 골수염은 물론 유선종, 각종 암성 질환들과 질병치료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던것이다. ... 김철웅동무는 수십년의 흔적 이력적인 어머니의 부피두려운 실험일들과 512번제로 받은 편지를 쓸어보며 가슴속에 다시금 깊이 새겨었다.

우리의것을 빛내이는 길에 바쳐진 삶이 이런 참되고 아름다운 자욱을 맺었이 남길수 있는 것들을.

본사기자 조경철

민족기악발전에 바쳐온 30여년

사리원고등예술전문학교 민족기악장조 강좌장 김미란동무

애국의 마음은 자기의것을 끝없이 사랑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 숭고한 사상감동이다.

그의 미에서 볼 때 사리원고등예술전문학교 민족기악장조 강좌장 김미란동무의 지니은 발자취는 결코 무심히 대할수 없다.

김미란동무는 지난 30여년간 예술인후비육성과 민족기악발전에 남모르는 노력과 정열을 바쳐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음악을 위주로 발전시켜야 음악예술에서 주체를 세울수 있다.》

김미란동무는 20살때부터 학생들에게 민족악기의 하나인 양금을 가르쳤다.

그도 이 학교에서 양금을 배웠다. 그의 부모들은 자기 딸이 무용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오그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 학교의 첫 입학식일었던 그는 색채적이며 맑은 소리를 내는 양금에 매혹되어 무용으로부터 양금으로 전심을 바꾸었다. 양금적인 음악적감각과

고 소문문들로 집필하면서 양금 연구방법들을 더욱 완성시켰다.

고난의 행군시기는 그에게도 신념을 증경하는 어려운 시련의 나날이었다.

일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날 때에도 그는 가정부인의 품으로 자기 초소를 지키면서 민족기악교육과 발전에 자기의 온 힘을 쏟았다. 그의 가슴속에는 오직 하나 우리의 민족기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불같은 마음이 간직되어있었다.

그는 남다른 가정사정이 있는 속에서 두 딸을 돌보면서도 여러해동안이나 고심끝에 끝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양금연구주법에 대한 문헌을 집필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는 몇해전부터 학생들에게 강지도 배워주었다.

그의 교수방법과 자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양금연구에서 장단성을 살리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가 지금까지 발표한 소문문은 10여건이나 되며 그가 창작한 10여건의 양금기악편곡은 특색있고 새맛이 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절찬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예술개인경연에서 우승하고 모교로 돌아올 때면,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와 교육기관의 예술인, 교원으로 떠나갈 때면 그는 가슴빠근하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현재 민족기악강좌에는 리영옥, 신복희, 리옥란동무들 비롯하여 김미란동무와 오랜 기간 예술인후비육성사업과 민족기악발전에 자신을 바쳐가는 교원들이 많다.

전국의 고등예술전문학교들 가운데서 사리원고등예술전문학교의 민족기악실력이 손꼽히는 사실을 놓고볼 때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뜨거우려이다.

그 어떤 약기도 흉내낼수 없는 우리의 민족기악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애학을 안고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쟁그리 바쳐가는 강좌장 김미란동무와 같은 교육자들에 애국심이 떠날때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황회는 나날이 더욱 질어가는것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그가 가르친 학생들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예술개인경연에서 우승하고 모교로 돌아올 때면,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와 교육기관의 예술인, 교원으로 떠나갈 때면 그는 가슴빠근하도록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

현재 민족기악강좌에는 리영옥, 신복희, 리옥란동무들 비롯하여 김미란동무와 오랜 기간 예술인후비육성사업과 민족기악발전에 자신을 바쳐가는 교원들이 많다.

전국의 고등예술전문학교들 가운데서 사리원고등예술전문학교의 민족기악실력이 손꼽히는 사실을 놓고볼 때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이들의 마음은 참으로 뜨거우려이다.

그 어떤 약기도 흉내낼수 없는 우리의 민족기악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열정과 애학을 안고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쟁그리 바쳐가는 강좌장 김미란동무와 같은 교육자들에 애국심이 떠날때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황회는 나날이 더욱 질어가는것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계급교양이다

은플광산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광산에서는 초급당원회의 지도밑에 참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이철도민간과 작업의 철함을 리용한 해설모임도 높은 실효성을 나타내고있다.

광주군과 직장들에 내려간 초급당원들은 작업의 철함을 리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지난

변해도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을 절대로 변할수 없다는 력사의 진리를 깊이 심어주었다.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필멸한 한 환상을 버리고 자신다만 혁명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혁명을 당하게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이 명수에 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 반역의 무리들을 높은 팻줄을 삼삼하게 짓부셔 버릴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로동동진원 심윤섭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계급교양이다

은플광산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광산에서는 초급당원회의 지도밑에 참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이철도민간과 작업의 철함을 리용한 해설모임도 높은 실효성을 나타내고있다.

광주군과 직장들에 내려간 초급당원들은 작업의 철함을 리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지난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사회주의문명건설주공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문화에 기초한 선진시대 사회주의언어생활기공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고있다.

대중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미음을 담아 인사말을 친절하게 하고 부부사이에는 정이 넘치는 말로 단란하고 화기애애한 가정분위기를 한껏 돋구어가고있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우리의 문화야말로 는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 자랑분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과와 함께 언어가 살아야 함민족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자기 언어의 소결성을 지켜나가는 민족만이 자주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일찍이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우리 문화어는 고유한 민족어를 바탕으로 하고 전국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혁명투쟁을 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발전한 평양말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화어는 혁명적이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며 하나를 하여도 명백하게 하는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기초에 맞는 언어이며 우리의 민족성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참다운 언어라고 하시면서 평양말을 기준으로 조언어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도 령도말과 우리 문화어는 주제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이 살아있는 언어로 더욱 발전하고있다.

혁명성과 전투성, 민족적정서와 향토애가 비친 고상하고 아름다운 시대에만이 사람들의 언어생활에 많이 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외래어와 비속어, 잡담말이 판을 치면서 우수한 우리 말과 글이 파괴되고 버림받았는것은 참담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리였다.

《우리라 출판한 30만개 단어를 수록한 <국어사전>에는 고유한 우리 말 단어가 5만개, 다시말하여 6분의 1밖에 올라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외세의 철저한 언어식민지로 변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남조선에서는 말할 때에도 외래어를 섞어가며 말해야 유식한 사람으로 인정되고있으며 그러다보니 잡담말을 하는것을 수치

로 여기지 않는 편이다.

대중 한심한것은 남조선당국자가 주요 <정객>들의 이름마저도 <신피르프르>나, <델프>이니 하는 외래어로 말하고 해외의 책과다 자존심도 없이 외국어로 연설하는 놀음을 자주 벌려놓는가 하면 <경부>기관과 <국회>, <대법원>이 문서를 작성할 때 외래어가 포함되어야 진위를 높일수 있다고 하면서 일반주민들은 알지도 못할 외래어를 넣는 등 외래어람움을 앞장서서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정지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부터가 외래어가 뒤섞인 잡담말을 마구 사용하고있으니 남조선사회주의가 민족어를 몰수하는 풍조에 몰리지 않을수 없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언어전문가들은 <선조들은 혼민정음을 창제하여 후세에 이음을 남겼지만 그 후손들은 무질서한 언어와 잡담말로 우리 말을 무참히 파괴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언어학자들이 남조선에서 쓰이고있는 생활용어 1643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고유한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담말로 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이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2개의 남조선 종합일간신문에서 하루에 쓰인 외래어가 800여개에 이르러고 <KBS>, <MBC>, <SBS> 3대방송사들의 예능프로그램에서는 1분에 한번이상 외래어와 비속어, 잡담말들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또한 남조선 <교육부>가 <세계화>를 떠들면서 영어만 장려하고 우리 말과 글을 몰수하더니 학교들에서 국어과목 시간은 얼마 되지 않자 기업들에서는 우리 말보단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언어사용실태를 조사한데 의하면 공공기관의 문서가운데 겨우 2%만이 우리 글을 올바르게 사용했으니 나라답다고 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영어철자나 문법이 틀리면 창피하게 생각해도 우리 글의 문법이나 맞춤법이 틀리는것은 별치않은 문제로 여기는 현상이 농후하게 나타나고있기때문에 우리 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남조선사람들이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희비극도 벌어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지식인들속에서는 현재 남조선에서 우리 글이 심히 파괴되면서 단일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져

고있다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이 세상에 자기의 말은 있어도 자기의 글자를 가지고있지 못한 민족이 많다는것을 생각해보면 세상이 얼마나 공인하는 우수한 말과 글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민족의 커다란 자랑이다.

지난날 일제의 가혹한 조선어말살책동속에서도 굳게 지켜온 조선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로 인정되고있는 우리의 민족어가 파괴되고는 있는것이 안타깝고도 슬프다.

북과 남의 편이한 언어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색이빠진 남조선사회의 반민족적정서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며 민족문화활짝 꽃피워가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된다.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민족문화어의 화원을 더 풍부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비옥한 토양이려면 민족어가 무뎠지않는것이 남조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언어오물장진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에게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복수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 대동단군계급교양관에서 - 본사기자 찍음

최악의 북남관계는 사대매국노들을 고발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5년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은 거례는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나가는 그 나날을 그러하며 파국에 처한 오늘날의 북남관계현실을 격분할 극치 하고있다.

왜 그렇지 않았는가. 6.15 통일시대를 통하여 온 거례는 북남관계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힘장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때만이 갈라선 협박을 이기고 자주적평화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북북로 절감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북남관계개선은 우리 민족끼리를 때려놓고 생각없이 오히려 이것을 떠나 그 엉뚱 조국통일운동의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위반할 때 북남관계는 곡절을 겪게 되고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며 나중에는 전쟁이 터지게 된다. 북과 남은 응당 우리 민족끼리의 힘장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북남관계문제를 민족공통의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민족자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야말로 북남관계문 개선을 유일무이한 길이다.

하지만 리명박역적정권이 마한가지로 현 괴뢰정권세력도 역사의 이 진리를 부정하면서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외세의존, 사대매국의 길로 질주하였다. 결과 북남관계는 오늘과 같은 극도의 불신과 대결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현 남조선정권의 친미친일사대국행위는 역대 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국을 섬기고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데서 현 괴뢰정권자는 친미사대에 이골이 났던 역대 괴뢰통치배들을 쫓겨내고있다.

부정침입선전로 《대통령》감투를 뒤

집어쓴 박근혜는 미국대통령에게 임기중 대부분을 함께 일할수 있게 되어 《기쁘다.》느니,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하니 하며 낯뜨겁게 야망을 뽐냈다. 이것은 표모란 한 자존심도 없는 쓸개빠진 친미주주의 역스러운 추태였다. 바로 거기에 동족과는 한사코 대결하면서 미국공작의 옷자락에는 바짝 매달리는 그의 매국역적으로서의 정체가 그대로 비껴나갔다.

그의 사대매국적정체는 지난해 4월은 남조선명씨 《세월》호참사로 눈물의 바다에 잠겼을 때 아시아행각에 나서서 미국대통령 오바마에게 제발 한번 외주입사 하고 빌붙고 그가 서울에 행차하였을 때에는 초상난데 출중는 격으로 인민들의 슬픔은 아랑곳없이 화사한 옷을 떨쳐입고 상전앞에서 창녀마냥 웃음을 치며 돌아왔다. 당시 괴뢰정권의 처사 얼마나 보기 민망스러웠던지 남조선인민들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까지 비난과 조소가 잇달았다.

현 괴뢰정권자는 미국이 없이는 단 한디도 살아갈수 없는 식민지주국이 다. 상전이 들려주었다는 군사적면에서 인민들과도 나사하지며 그것을 영인하여 미국에 떠맡기려고 발광한것이 바로 한국이다. 괴뢰정권자가 직접 미국대통령을 찾아가 애걸복걸하여 전직작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한것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 영구히 불붙여두며 그에 의존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반민족적기도의 발로이다.

전직작통제권전환의 연기요구를 실현한 대가로 괴뢰정권은 미군유지비 분담금의 인상과 고고도격치사업 《싸드》의 남조선배비와 같은 최악의 각종 남강도적인 요구를 통해 받아

물어야 하는 가련한 신세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해칠 용기에 사로잡힌 괴뢰정권자는 말끝마다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며 상전과의 《동맹》강화에 기세를 부리는 한편 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탕진하여 술한 미국제무기들을 구입함으로써 상전의 환심을 사고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자주의식이라고는 표모란품도 없는 미국의 가련한 하수인, 특등매국노가 집권한것으로 하여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예측은 더욱 심화되고 남조선인민들의 불행과 고통도 더욱 가중되었다.

현 남조선정권의 친일매국행위는 민족의 백년속적에 채찍의 길을 열여주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다. 박근혜가 집권한 이후 남조선에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는 역사교과서를 개정하여 통파시킨 친일역사들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역사관련분야의 요직들에 배치되어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괴뢰정권자는 각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일, 남조선정보공유약정을 거둬들이며 체결하였으며 외국에 나갔다는 외교관들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표현할 때 《대게시도》라는 일본식명칭과 함께 써도 된다는 매국적인 지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민족의 치욕은 자아했다. 이것은 친일매국에 환장한자가 아니요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역적행위였다.

현 괴뢰정권의 사대매국행위는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극도의 파국에 이도 깊어져 나뉘어갔다.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을 합칠 대신 사대매국으로 잔명을 부지하는 현 괴뢰정권자의 반민족적당동이 북남관계에 끼친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

괴뢰들이 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를 외세에게 내맡기며 그에 의존하여 한사코 동족과 대결할 때부터 북남관계는 외세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희생물이 되었다.

박근혜가 얼마나 사대매국에 환장되어있는가 하는것은 해외를 뻗질나개 싸다녀며 민족의 궁지이고 자랑인 우리공화국의 자주적역력체계를 《제기》시켜달라고 구걸질해대고 남조선인민의 불모지, 현대판야만사화로 전락시킨주체에 그 무슨 《북인권》이라는것을 오히려 때리며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정책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을 통해라도 잘 알수 있다.

외세에만 의존하면 만사가 해결될수 있다는 박근혜정권의 맹목적인 외세중심의 식민지통치와 종파와 리, 북남관계들을 엄중히 해치는 결과만을 낳았다. 괴뢰들의 반민족적인 사대매국행위로 북남사이에서 커가라는것은 대결과 불신뿐이다.

북남관계의 현 사태발전은 괴뢰정권세력의 사대매국행동을 끌장내는것이 민족의 생사운명과 조국통일을 판별하는 사활적문제, 남조선인민들의 절박한 투쟁과제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적으로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변혁을 비라고 조국통일을 지향해나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반역하는 괴뢰정권을 역사적 무덤속에 매장해버리기 위한 애국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장 윤 남

그 어떤 도전도 우리의 군력 강화의지를 꺾을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력강화조치와 핵억력을 약탈하게 걸고들며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정책강화에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다. 며칠전 괴뢰정권은 서울에서 미국, 일본의 6차회담수석대표들과 그 무슨 3자협의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의 핵능력과 도화의 심각성》을 운운하며 상전들과 이마를 맞대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데 대한 중공을 꾸짖었다. 한편 《북인권》개선이니 뭐니 하는 허튼 나발을 부어대며 그 무슨 《국제사회의 동력역할》에 대해 수작질하였다.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해치려는것이 남조선괴뢰들의 변함없는 용심이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동족안살을 위해 외세와 결탁하는 괴뢰정권의 매국반역책동이 지금처럼 절정에 달한것은 일찌기 없었다. 최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수습 판도관수습합참사를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며 하루가 멀다하게 외세와 마주앉아 《대북공조강화》를 추후하는 불순한 모의판들을 벌려놓았다. 이번엔 서울에서 열린 미, 일, 남조선 6차회담수석대표들의 3자협의회의라는것은 상전과 주주들사이에서 분주스럽게 벌어지는 반공화국속터대결의 한 실례일뿐이다. 현실은 외세와 아합하여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체제의 포위압력을 더욱 비약 증폭하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 괴뢰역적정권의 책동이 최악의 단계에 들어섰고있는것을 실감해두고있다.

핵억력을 증추추하는 우리의 군력강화는 철두철미 날로 가중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북침장성위협과 핵경쟁에 대처한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것은 나라의 체존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주권행사로써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정권은 우리의 정당한 군사력강화조치에 대해 입에 거머쥘을 물고 미친듯이 협박으며 미일상전들의 옷속에 매달려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애걸복걸하고있다. 얼마전

에도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역도는 남조선에 남아있는 미국부장관 케리와 함께 우리의 전략적수습 판도관수습합참사에 대해 그 무슨 《위협》이니, 《비협박의 필요성》이니 하고 떠벌이며 《대북공조와 연합억력강화》에 대해 모의하였다. 더우기 스치치달수 없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에게 대한 압력의 도수를 높이기 위해 《인권》도박사동에 기세를 부리고있는 사실이다.

괴뢰정권은 반공화국핵소동으로는 저들의 범죄적 목적을 실현할수 없게 되자 비렬하게도 《인권》모략에 더욱 기대를 걸면서 자기에 발붙여놓은 남조선인민들의 사투리나에 집요하게 매달리며 허드레 대결과 북침장성도발에 따른것은 괴뢰정권의 추악한 정체는 다치군 날일이라고 떠들었다.

조성민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병진로선으로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자주적억력체계를 백배천배로 강화해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남조선괴뢰들이 외세와의 반공화국대결정책으로 우리에게 대한 체제와 압력의 도수를 높여 그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매국역적들이 외세와 공모협력하며 미쳐날뛰는것은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으로 침략자들의 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우리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해줄뿐이다.

우리는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하여 외세와 공모협력하며 민족을 반역하는 괴뢰역적정권의 죄악을 하더라도 빠짐없이 기록하고있다. 박근혜정권이 그 엄청난 죄악의 대가를 비싸게 치를 정벌의 시각은 다가오고있다.

심 철 영

괴뢰정당은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설수 있는 초보적인 자격부러 갖추어야 한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괴뢰정당이 그 시꺼먼 속통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라명을 극성스럽게 외치고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요즘 일만 벌리던 우리의 체제를 흔들려는 야망을 내뽐으면서 한편으로는 《약속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느니, 《내민 손을 뿌리치기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요절을 늘어놓아 마치도 우리때문에 북남관계가 대타협이 열리지 못하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여기에는가 윤병세요, 홍용표요 하는 괴뢰정주나부행이들까지 모두 떨쳐서서 미일상전과 편입 반공화국모의판을 벌려놓고 그 무슨 《압박과 대화의 병행전략》에 따른 《대화유도》라는것을 주절대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날로 격화되는 통치위기를 모면하며 외세에 매달려 동족대결을 더욱 격화시켜려는 흉악한 속심

밀에 박근혜정당이 높아지는 또 하나의 정치사기극, 어른기만국 일따름이다.

사실 괴뢰정당은 그 무슨 《대화》를 일일 올릴 한조각의 체면이니 자각도 없다.

알려진것처럼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흔이 되는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북남관계에서 대결전, 대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과 중대조치들을 천명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괴뢰정당은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치에 호응해나선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최고준엄에 대한 약탈한 비방중상과 외세와 아합한 판관적인 북침장성습소동으로 대담해나섰다.

극단한 체제대결과 《흡수통일》에 열이 뜬 박근혜정당은 상대방의 체제를 전면부정하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의하의 통

일》을 공공연히 추구함으로써 대화와 관계개선의 근본기초부터 완전히 허물어버렸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먹고 대화의 기회를 다 차버린 괴뢰정당은 이제 와서 《대화》를 운운하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이다.

괴뢰정당이 외세와 작당하여 그 무슨 《체제와 압박》을 통해 누구를 대화에로 《유도》해보겠다고 떠들어대는것은 더더욱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런 서슴치려 말장난으로 그 누구를 불쾌워보려 하는것은 열 빠진자들의 어리석은 망상이다.

《체제와 압박》이 우리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이제 다 알고있는자도 다 알고있는자도 모르고있는것은 유독 박근혜와 같은 대결과 도발에 환장한자들 뿐이다.

박근혜정당이 속에 칼을 품고 외세와는 그대위 《대화》라명을 커기울일 사람도 없으며 또 그런

요설로는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괴뢰정당이 인정 조우와 마주 앉기를 원한다면 초보적으로 대화상대가 갖추어야 할 제모부터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판점과 북남관계에 합한 공동통일을 인정하고 리행하려는 방침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지 말고 동족대결정책을 버려야 하며 정세를 긴장시키려는 북침장성습소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괴뢰정당의 말이 아니라 실지행동을 엄격히 주시해볼것이다. 주제104(2015)년 6월 3일 평 양

남조선인민들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단죄

남조선인민들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현대중공업로동조합과 전국금속로동조합 출신자부현대중공업사내하청직지파 얼마전 현대중공업로조사무실업에서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공동투쟁의진회를 가지었다.

3000여명의 로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금까지 하청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임차료가 다쳐도 눈치를 보아야 했고 지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개탄하고 비난하였다.

더이상 참을수 없다. 회사사의 탄압에 맞서 로동자들이 힘을 모아 싸워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고동발과 착취당하는 로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호소하였다.

하청로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생존권을 쟁취하자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 * * 남조선인민들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얼마전 남조선의 참모들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5월 19일 괴뢰인민위원회앞에서 권력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비호, 목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최근 인민위원회가 괴뢰당국의 독압탄핵을 로골적으로 비호, 목인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져 각계의 비난을 자초하고있다.

지난해 《세월》호침몰사 300여명이 수장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여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져자 괴뢰정권은 과소경찰을 내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참사발생 1년을 계기로 대규모투쟁에 나선 각계층



괴뢰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조선중앙통신】

민중이 북정에 발기 투쟁을 쏘아대기

《5.24조치》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지금 그것은 북에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북남관계의 장애물이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최대고민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며칠전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실린 《5.24조치》 5년 무효를 남조선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의 한 대목이다.

괴뢰정당이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정책의 일환으로 《5.24조치》라는것을 꾸며낸지 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는 이 시대착오적인 대결각본에 대한 북남관계문제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이 진행되고 그 결과를 요구하는 사회각계의 투쟁이 벌어졌다.

《5.24조치》라는 것이 북남관계의 엄중한 장애물로 되고있으며 또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것만큼 전면철폐해야 마땅하다는것이 광범한 남조선인민들의 주장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언제까지 유지될지 기약도 없는 《5.24조치》가 과연 어디에 필요한가.》라고 하면서 그의 철폐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지난 5월 21일 괴뢰국회는 《5.24조치》 5년,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은 북남관계의 차단을 말로 《5.24조치》의 해제가 시

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5.24조치》로 인해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들이 피해를 입고있다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당국은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하면서 문제의 해결은 당국의 결단에 달한다. 마지막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런 속에 《5.24조치》의 철폐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지난 5월 24일 서울을 광화문광장에서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각계 단체들의 대규모집회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우리 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 6.15 민족공동행사 서울준비위원회와 100여개의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했다. 집회에서 민주로총의 한 인사는 조국해방 일흔흔을 맞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이루어갈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는 민족의 노력을 강조하여 《5.24조치》를 구실로 외면하고있다고 하면서 그의 해제를 위한 투쟁에 로동자들이 앞장설것이라고 결의하였다.

얼마전 남조선의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 외교, 안보문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5년의 북남관계현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62.3%가 《5.24조치》의 해제를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구강강판판재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무려 97.1%에 달하였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의 민심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괴뢰정권은 그 누구의 《신인》과 《사파》나, 《세발방지담보》나 하는 주장명분의 객담같은 나발을 작작 불고 민심의 요구에서 자기들의 이리석음을 깨달아야 한다.

본사기자 리 효 진

침략의 원흉인 미국과 그에 빌붙어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괴뢰정당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한다

탄저균반입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남조선단체들 항의

미국이 남조선에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탄저균을 비밀리에 반입한 사실이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하고있다.

특색연합은 5월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탄저균의 반입이 남조선민중의 생명안과 직접 연결된 문제이므로 불구하고 그 전과정을 누구도 모르고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미군기내에서 무엇이 반입, 반출되었으며 생화학 무기로 사용될 물질인지를 어떤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는지 오만비공군기에 너무 많다고 밝혔다. 미군이 기내에 토지주 오염시킨 행위, 고염제를 파묻는 죄행 등 환경오염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남조선미국당국이 대책을 운운하였지만 비변것은 없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미국당국이 이번 탄저균반입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공식사파하며 제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성명은 요구하였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미국의 탄저균반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탄저균반입사기가 언제이며 그것이 남조선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민중의 생명안과 관련하여 탄저균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미군기내에서의 반입, 반출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의 미국 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이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세균종을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준비하고있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번 탄저균반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계층이 미군기내에서 대대적인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연명하였다. 그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정권자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이 공식사파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하였다.

중미사대매국 《정권》은 물러나라

남조선인민들신문 《민족일보》가 글 게재

미제가 남조선에서 위협당한 생화학전생존비를 드러내는 흉악한 범죄적행위를 드러내놓고자 하는것을 미군사파하며 제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성명은 요구하였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미국의 탄저균반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탄저균반입사기가 언제이며 그것이 남조선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남조선민중의 생명안과 관련하여 탄저균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미군기내에서의 반입, 반출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7월 19일 괴뢰인민위원회앞에서 권력의 반인민적악정에 대한 비호, 목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최근 인민위원회가 괴뢰당국의 독압탄핵을 로골적으로 비호, 목인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져 각계의 비난을 자초하고있다.

지난해 《세월》호침몰사 300여명이 수장되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여 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져자 괴뢰정권은 과소경찰을 내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참사발생 1년을 계기로 대규모투쟁에 나선 각계층

중국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미국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채 목인, 방조하는 중미사대매국《정권》, 박근혜 《정권》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누가 우리 민족의 생명안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있는가

해인동포인사들 발표

있는 상진 미국은 《정의》이고 미국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안락과 조선반도를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인 핵억력을 들어온 북은 《불의》란 말인가. 핵개발이 미국의 수많은 핵무기와 세군우까지 끌어들이며 북을 향해 대치해놓고 동족을 거대한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며 우리 민족을 일족족방의 전쟁위기에 몰아가면서 군기에 탄저균실험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세균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고 까발렸다.

그러나 논란 따르면 《북핵 위협》에 대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박근혜 《정부》는 민족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탄저균이 남조선에 들어와도 불명등은 미군남조선 《행정형성》에 묶여 검사는 고사하고 사실여부조차 확인 못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모든 사실은 과연 누가 우리 민족의 생명안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륙하고 가는 곳마다를 폐허로 만들고 남조선에 핵무기와 세군우까지 들이밀어 위협하고

미국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미국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채 목인, 방조하는 중미사대매국《정권》, 박근혜 《정권》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미국은 이미전날 오산미공군기에 탄저균실험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세균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고 까발렸다.

그러나 논란 따르면 《북핵 위협》에 대해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박근혜 《정부》는 민족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탄저균이 남조선에 들어와도 불명등은 미군남조선 《행정형성》에 묶여 검사는 고사하고 사실여부조차 확인 못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모든 사실은 과연 누가 우리 민족의 생명안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륙하고 가는 곳마다를 폐허로 만들고 남조선에 핵무기와 세군우까지 들이밀어 위협하고

【조선중앙통신】